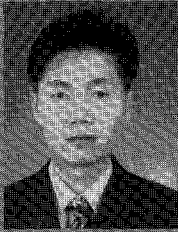


Travel

생활공간, 그곳의 화장실

[기분 좋은 도시]로 키워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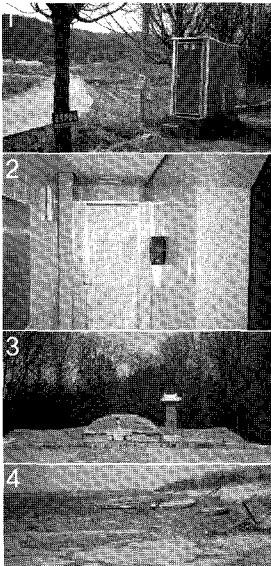
화성



글 | 박윤연
드림에디컬 대표, 전 미소공 편집부장

봄바람이 산들산들, 이제 야외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수도권에서 일요일에 아이들의 등살에 밀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부담 없이 당일로 다녀올 만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전시관 주차장 앞 화장실
문을 열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결하였다
2. 전시관내의 화장실
시설이나 청소상태는 양호하였지만 부족한 예산때문인지 출입구 앞에 1개만 걸려있는 화장지
3. 23인 합동 순교묘지
1982년 도이리 공동묘지에 평토장(릉분이 없음)으로 안장되었던 유해를 발굴하여 현재의 자리에 모실
4. 조곡리 선창포구
매립작업으로 이미 갯벌을 죽여 있었다.

충효예향(忠孝藝鄕)의 화성

경기도의 서해안 쪽에 위치한 화성 시는 수원시(1949.8.15:수원 읍에서 시로 승격)와 오산시(1989.1.1 오산 읍에서 시로 승격)를 같은 뿌리로 출발하여 [생활권이나 시민정서가 3개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화성시가 충효예향을 프로모션 심볼로 사용하는데는 나름대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능이 있고 홍난파 선생의 출생지)

화성 시는 독립기념관의 장소 선정 시에 천안시와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곳으로 3·1독립운동만을 놓고 비교하면 결코 천안에 뒤질 이유가 없었지만 기념관 부지조성에 대한 경제적인 이유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외적인 요소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개할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에서 약 3분 정도의 거리(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에 위치한 곳으로 1919년 3·1독립 만세 운동 시에 국권회복을 위한 만세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화성시의 독립운동 상황을 널리 알림으로써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바르게 기리고 역사의 현장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애국애족의 장이 되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특히 1919년 4월 5일 이곳 주민들이 발안장터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을 벌이자 만세운동의 주모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한 일본 헌병들이 제암 교회에 주민을 모이게 한 뒤 모든 문을 폐쇄하여 감금하고 불을 지른 후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23명을 학살하고 30여 채의 가옥을 불태워 버린 선조들의 한과 넋이 서린 역사적 사실과 유물이 제1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관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과 국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전시관 뒤편에는 제암리 학살사건이 발생하고 63년이 지나서야 마을에서 4km 떨어진 도이리 공동묘지에 평토장으로 안장되었던 유해를 발굴하여 23인 합동순교 묘지를 조성하고 후세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념비를 설치하였다.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엔 휴관하며,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떠나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장실을 평가한다면, 기념관은 최근에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나 청결부분에는 만족할 만큼 양호한 상태였으나 부족한 예산 때문인지 화장지는 출입문 쪽에 하나밖에 없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주차장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매우 불결하여 창피한 수준이지만, 사실 공격(?)하는데 조심스러운 것은 비판을 하게 되면 그나마 치워버려 화장실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협회의가 간이 화장실의 제작 또는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변의 관광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기념관의 상징 표어를 가슴에 담고 나오며 주변 관광 안내도를 들여보면 인근에 온천이 여러 곳이 있다.

단순히 온천 욕을 하려는 사람들은 화성온천이나 울암온천 쪽을 선호하지만 가족간에 나들이 형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곡리 선창포구 진입로 입구 쪽에 있는 월문 온천을 선호하는 것 같다.

가족과 함께 온천 욕을 즐긴 후에 바닷가로 향하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것이다.

주곡리 선창포구는 호곡리와 인접하고 도로표지판에 호곡리 안내판이 많아 주곡리와 호곡리를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선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선창은 원래 싱싱한 새우와 새우젓을 사기 위해 도매상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로 바뀌었다.

이제는 [대하구이, 조개구이, 생선회, 각종 젓갈, 건어물.....]등의 메뉴로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며 사실상 수산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액인 2~3만원이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 같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제 선창포구는 죽어가고 있다.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막고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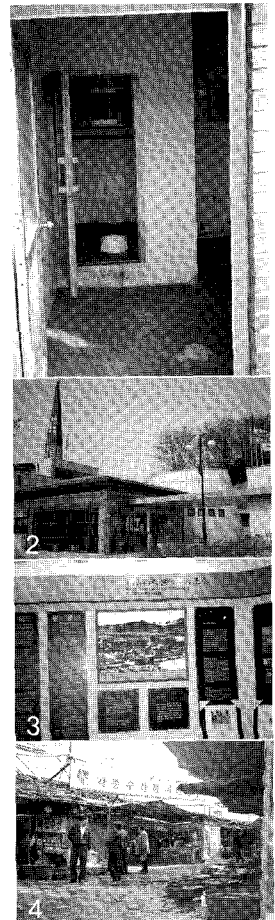
한 쪽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휴경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한 쪽에서는 식량 무기화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바다 매립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남양호방조제(평택시 방향), 시화방조제(안산시 방향)에 이은 남양만(선창포구 부근)의 매립으로 사실상 화성시의 서해안을 모두 죽이는 꼴이 되었다.

[수산물도 식량만큼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는지

삭막한 갯벌을 둘러보면 환경과 수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보통사람들도 저갯(매립)을 왜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상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2곳을 보았는데 청소상태는 양호하여 악취는 전혀 없었지만 낙후된 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화장실이 청소만 깨끗이 하면 청결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것을 느끼게 된다.



1. 선창포구 공중 화장실
청소상태는 양호하여 악취는 없었지만 시설보완이 필요하였다
2. 제암리 3·1운동 수곡 기념관
일본인들이 사회의 의미로 1천만엔을 모금하여 신축해 준
제암교회를 활용 그 자리에 기념관을 설립하여 2층은 교회로 사용
3. 제1전시관
제암리 학살사건과 3·1운동 당시에
화성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소개
4. 주곡리 선창포구
평일에 비교적 한산하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가득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다
5. 월문온천
선창포구 진입로 입구쪽에 위치한 온천

5